

ICT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수요와 지원기업 성공사례 연구 : ICT 융자사업 중심으로

고경일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Demand on Government Sponsored Loan and Successful Case Study on ICT SMEs : Focused on 'ICT Government Sponsored Loan Project'

Kyungil Khoe

Division of Business & Commerc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CT 융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받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배경 및 연구성과, 파급효과, 기대효과, 에피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ICT 중소기업의 기술적·경제적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ICT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규모의 정책융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기술개발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닌 ICT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필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체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주제어** : ICT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수요조사, 사례연구, 정책 제안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of ICT SMEs participating in 'ICT Government Sponsored Loan Project' for researching general demands on Government sponsored loans and studies successful company case by inspecting background of R&D, performances, impacts, prospects, episodes, etc. Actually, survey results show that ICT SMEs demand more of Government sponsored loans and that stable financing is a core factor and the most difficult task for successful R&D. In conclusion,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Government has to create new policies for competitive ICT SMEs to recover financial stability through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 **Key Words** : ICT SMEs, Government Sponsored Loan, Survey for Demand, Case Study, New Policy

1. 서론

우리나라 정책자금 중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융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시하여 많은 사업

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4,5,6,13,14,15]. 그러나 ICT분야에 국한하여 기술과제 평가를 통해 IT기술력에 근거한 정책자금은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

*Corresponding Author : 고경일(kyungil@b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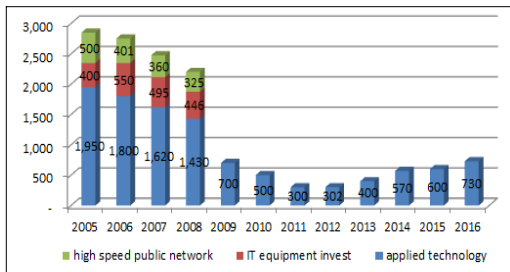
Received November 30, 2016

Accepted January 20, 2017

Revised December 30, 2016

Published January 28, 2017

용자사업(응용기술개발지원용자사업)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사업은 2008년까지 ‘초고속공중망사업’, ‘IT설비투자지원사업’,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2,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지원되어 오다가 2009년부터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원규모도 7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 소폭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용자사업의 성과분석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Fig. 1] Annual Scale of IITP Sponsored Loan

IT산업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ICT분야에 특화된 용자사업은 그 필요성이 더 높아져가고 있으며, 실제적인 수요 조사와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지원규모의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7,8,11,12].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본 용자사업은 ICT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제품 사업화 성공, 더 나아가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 결과 용자 후 KOSPI, KOSDAQ, KONEX 등의 자본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으며, 용자 후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자금에 대한 수요조사 뿐 아니라 용자금을 수혜받은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용자사업이 ICT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적·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용자금 수요 조사 결과

본 장에서는 용자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사업의 선호도, 기술개발 관련 용자금의 필요정도, 기업 성장발전 영향요인 및 기업 성장발전 애로요인으로서의 용자금 필

요성, 필요자금의 용도,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서의 정책용자금의 필요 등을 조사함으로써 본 사업의 수요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IITP 용자사업에 참여한 총 3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수요와 관련한 설문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14개 기업이 조사에 응답해 줌으로써 62.6%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용자수요에 관한 조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2.1.1 본 용자사업 선호도

용자수혜기업들이 IITP 용자사업을 포함하여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 시중은행,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용자를 어느 정도로 선호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중은행 보다는 정부기관의 정책용자금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평균점수도 3.60을 기록하는 등 정책용자에 대한 매우 높은 수요정도를 보여주었다[2,3].

<Table 1> Degree of Loans Preference (unit : score)

Loan Sources	Loan year					Average
	2011	2012	2013	2014	2015	
IITP	4.28	4.44	4.45	4.36	4.74	4.45
KIBO	3.42	3.55	3.91	4.23	4.19	3.86
SMBA/SBC	3.69	3.61	3.67	3.98	4.08	3.81
Banks	3.38	3.05	2.80	3.04	2.83	3.02
Local Autonomous Entities	2.71	2.71	2.70	3.20	3.06	2.88
Average	3.50	3.47	3.51	3.76	3.78	3.60

Data : IITP, Report on Performances of 2015 ICT Promotion Loan Program. 2016.

2.1.2 기술개발 관련 용자금 수요조사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기술개발과 관련한 용자금의 필요는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설문에서 그 필요정도가 4.22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개발 관련 용자금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개발과 관련한 용자금의 필요시기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2년 이내가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1년 이내보다는 2년 이내가 더 선호되고 있어 기술개발을 염두에 둔 경우 2년 정도의 기간이 요구되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2,3].

<Table 2> Percentage of Need on Loans for R&D
(unit : score, %)

Demand Factors	Loan year					Average	
	2011	2012	2013	2014	2015		
Need on Loans for R&D	4.08	4.11	4.29	4.31	4.32	4.22	
Timing to need loans	within 1 year	27.0	34.6	46.2	50.0	21.6	35.88
	within 2 years	35.1	53.8	41.0	32.8	48.5	42.24
	within 3 years	29.7	11.5	10.3	13.8	18.9	16.84
	within 4 years	5.4	0.0	0.0	1.7	8.1	3.04
	within 5 years	2.7	0.0	2.6	1.7	2.7	1.94

Data : IITP, Report on Performances of 2015 ICT Promotion Loan Program. 2016.

2.1.3 수혜기업 성장발전 영향요인

융자사업 수혜기업들의 성장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27.5%), 인력 확보(24.0%), 기술경쟁력 확보(20.0%), 해외시장개척(15.1%), 정부지원(12.2%)의 순으로 조사됨으로써 IT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원으로서의 본 사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술력을 지닌 IT기업들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와 함께 기술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2,3].

<Table 3> Growth Factors of Beneficial SMEs (unit : %)

Growth Factors	Loan year					Average
	2011	2012	2013	2014	2015	
Finance	26.5	21.4	28.9	28.9	31.4	27.5
Technical Manpower	25.5	26.7	21.7	24.3	21.8	24.0
Technology Competitiveness	19.9	22.2	18.0	19.5	20.3	20.0
Foreign Markets	18.4	15.4	15.4	12.5	13.6	15.1
Government	9.0	11.6	14.4	14.0	12.2	12.2
Others	0.7	2.8	1.7	0.8	0.8	1.4

Data : IITP, Report on Performances of 2015 ICT Promotion Loan Program. 2016.

2.1.4 수혜기업 성장발전 애로요인

융자사업 수혜기업들의 성장 발전에 애로를 겪는 요인 역시도 자금부족(29.5%), 인력부족(23.4%), 판로확보 문제(19.6%), 국내외 시장 격화(14.4%), 대기업 불공정 거래(5.4%), 정부규제(5.4%)의 순으로 조사됨에 따라 수혜기업의 자금조달 및 인력확충을 위해 융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2,3].

기술력을 지닌 IT기업들의 성장 발전 애로요인으로도 자금부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본 융자사업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Difficulty Factors of Selected SMEs (unit : %)

Factor	Loan year					Average
	2011	2012	2013	2014	2015	
Shortage of Funds	26.8	25.3	31.3	33.3	31.0	29.5
Labor Shortage	27.2	23.7	21.7	23.9	20.4	23.4
Market Expansion Difficulty	22.2	18.9	20.7	16.9	19.2	19.6
Global Competition	13.6	16.7	14.5	14.9	18.3	14.4
Unfair Transaction	7.8	5.0	3.7	5.4	5.0	5.4
Government Regulation	2.2	7.7	6.5	4.5	6.0	5.4
Others	0.3	2.7	1.7	1.1	0.0	1.1

Data : IITP, Report on Performances of 2015 ICT Promotion Loan Program. 2016.

2.1.5 정부 중점 추진 사항

융자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성장 발전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융자사업 수혜기업들은 중소기업 R&D자금 지원확대(31.7%)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등) 지원 확대(28.7%)가 다른 사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지원사업인 본 사업의 지속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3].

<Table 5> Major Promotion Works of Government

(unit : %)

Work	Loan year					Average
	2011	2012	2013	2014	2015	
Expansion of Fund for SMEs' R&D	29.6	28.3	35.0	34.7	30.8	31.7
Expansion of Government Sponsored Fund for SMEs	28.4	25.9	28.2	29.6	31.2	28.7
Mutual Cooperation between Major Company and SMEs	17.2	13.1	9.2	10.2	11.4	12.2
Support for Export and Sales	11.2	13.5	12.4	10.4	11.2	11.7
Support for Raising Manpower and Training Labor	8.8	11.9	7.5	9.4	7.9	9.1
Abolition of Government Regulation	4.8	6.9	6.3	4.9	7.2	6.0
Others	0.0	0.4	1.4	0.8	0.3	0.6

Data : IITP, Report on Performances of 2015 ICT Promotion Loan Program. 2016.

창출을 위한 ICT 및 ICT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보통신융합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학생들의 비만 및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율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히려 흡연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현재의 정책은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그 내용이 학교마다 다르게 관리되고 있고, 정책 조차 없는 학교도 있다. 이처럼 뒤떨어진 관리체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상태는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이에 (주)아우라는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건강에 대해 전반적인 ICT 솔루션을 제공하여 청소년 건강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건강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인 '스마트 건강 지킴이'의 기술 고도화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융자지원에 선정되게 된 것이다. 특히, 동사의 목적은 기술고도화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왔다.

3.2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 : 스마트건강지킴이 출시

'스마트 건강 지킴이'는 아동, 청소년의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스마트 건강증진 시스템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스마트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응용프로그램)의 형태로 출시되었으며, 스마트폰의 앱이지만 단순한 앱이 아니다. 스마트 건강지킴이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학생/학부모의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해도 주기별로 신체발달 사항을 점검하고, 측정된 정보는 서버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그리고, 개인 발달 상황 등의 정보를 학부모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1) 종합 건강관리, (2) 두뇌 분석 및 개발 콘텐츠, (3) 모바일 상담 서비스, (4) 안전 지킴이 및 학교 정보 알림 등이 있다. 건강관리는 주로 흡연과 비만으로 나뉜다. 우선, 학교 측과 협력 관계를 맺어 매일 1회 키, 몸무게, 근육량, 비만도 등을 측정해 종합 건강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식단 영양 관리와 개인별 맞춤형 운동 등도 설계해 준다. 특히, 운동한 양과 달리기한 거리, 시간과 칼로리 소비량을 전국 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흡연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담배 성분을 검사할 수 있고, 간접흡연까지도 체크할 수 있다. 측정된 지수는 학급, 학교, 지역, 국가 단위로 구분되어 본인의 현 상황을 파악해볼 수 있게 하였다.

2013년 9월 광명시와 MOU를 체결하며 청소년 건강관리와 흡연 예방을 위한 'SHP(Smart Health Protector System)사업'을 수행했다. 즉, 광명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등 2개교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으로 1년간 추진하였다. 이후 성공적인 과제 수행으로, 해당 학교 청소년 비만·흡연율을 크게 낮추었고(전국 중학교 평균 비만율 15.1% → 시행학교 11.56% / 전국 중학교 평균 흡연율 6.64% → 시행학교 0.47%), 12개교로 스마트건강지킴이의 설치를 확대하였다. 즉, 기술의 고도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이 서비스는 각 학교가 선정만 하면, 전교생이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이므로, 안정적인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스마트 측정기를 이용한 신체관리 시스템 및 그 신체관리방법'과 '추천 저녁메뉴 제공방법 및 관리', 그리고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방법'이라는 특허를 취득하였고,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과 VIP Asia Awards에서 올해의 제품(모바일부문)을 차지했다.

3.3 연구활용도 및 파급효과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는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어 개인, 기업,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를 말한다. SW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의료, 생활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와 직업을 만들어 낸다. (주)아우라의 스마트건강지킴이는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학생의 키와 몸무게, 흡연 여부, 체질 지수, 성장 점수 등을 측정해, 그 결과와 더불어 학생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형 SW이며,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희망이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이 서비스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O4O(Online for Offline)'는 온라인의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활용해 실질적인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다. 이는 O2O(Online to Offline)와는

다르다. O2O는 온라인 비즈니스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단일 모델이고, O4O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매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오프라인은 다시 온라인의 회원증대로 이어지게 되어, 온/오프라인의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통한 발전과 누적된 내공을 바탕으로, 동일 시장이 존재하는 전 세계 어디든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주)아우라는 (주)알리미와의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면 '에듀테크'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교육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2세대 e러닝으로 분류되어, 핀테크와 함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최대 시장인 영국 에듀테크 산업 규모는 29조원으로 추산되며 2020년까지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12조원 규모로 이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대상이므로 세계시장의 전망은 더욱 밝다고 할 수 있다. (주)아우라는 앞으로도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며, 세계로 확산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3.4 기대효과

스마트건강지킴이의 도입을 통해 WHO가 권고하는 "학교 스스로 학교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건강증진학교"의 개념에 IT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여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지킴이가 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련된 사회적 비용 역시 감소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비만이 1%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은 수천억 원 감소한다고 한다.

향후 청소년들에게 종합적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담사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운동량과 식사량을 측정해 비만을 막기 위한 저녁 식단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아우라는 개인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인 만큼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선진국형 안전-건강모델을 만들자는 목표로 갖고 있다.

최근 (주)아우라는 스마트 안전 지킴이를 서비스하는 (주)알리미와 AtoZ라는 브랜드로 비즈니스모델을 합쳤다. AtoZ는 아이 성장 DB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과 상벌 등 아이 성장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제휴로 양사는 학교, 학생, 학부모가 윈스톱으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즉,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상태 진단을 통한 두뇌발달과 진로설계, 키 성장 및 체중관리, 흡연예방 등 정신 및 신체의 건강 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발돋움한 것이다.

3.5 연구과정에서의 에피소드

동사의 대표이사는 청소년기부터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20대에 접어들어서는 아동·청소년 건강관련 일을 하면서 조금씩 전문지식을 습득하였고, 이후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자 노력중이라고 하였다. 비만·심리·정서 관련 보건복지부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건강, 진로, 취미 활동 등의 교육 등 많은 경험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관련된 전문적인 콘텐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빅 데이터를 통한 ICT 융합기술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6월 정치경제 아카데미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성대표가 현 청소년 건강관리체제의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면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주)아우라는 더욱 더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뿐 아니라, 그에 맞는 오프라인 환경까지 만들어가며 더욱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함과 동시에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의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2015년 자본이 증가면서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2013년 창업 이후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되고 있어 활동성이 높은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수익성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도 향후 신속하게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1].

<Table 9> Recent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unit : million)

Item	2013	2014	2015
Total Asset	344	364	907
Total Debt	308	247	439
Total Capital	36	116	468
Sales	5	339	647
Operate Profit	-67	82	-35
Net Profit	-64	81	-48

Data : CRETOP(www.cretop.com)

4. 결론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응용기술개발융자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대상이 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배경 및 연구성과, 파급효과, 기대효과, 에피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ICT 중소기업의 기술적·경제적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융자사업의 유용성을 보여주기 위해 도출한 매출유발액, 비용절감액, 신규고용효과를 융자사업의 파급효과가 생각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실제로 ICT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규모의 정책융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기술개발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술경쟁력이 검증된 ICT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입안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지원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요조사 결과는 현 융자지원정책의 효과와 보완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융자사업이 단순히 기업성장을 도모한다거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영역에 IT기술

을 보급함으로써 사회전반이 건전한 국가, 국민건강이 증진되는 국가가 되어지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함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되길 기대해 본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6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REFERENCES

- [1] Cretop(www.cretop.com)
- [2] IITP, Report on Performances of 2014 ICT Promotion Loan Program, 2015.
- [3] IITP, Report on Performances of 2015 ICT Promotion Loan Program, 2016.
- [4] J, Baig and B. Yoon, "A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Policy Lending Program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20, No. 5, pp. 139 - 58, 2013.
- [5] J, Kim, S, Lee, Y, Lee, K, Jang and G. Shin, "Analyses on Performance of Government Supporting Fund: Focused on SMEs Supporting Fund for SM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Fall Academy Conference, pp. 643 - 678, 2006.
- [6] L. S. Kim and J. B. Nugent, "The Republic Korea's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and Their Support Systems",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Financ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Divis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404, 1994.
- [7] K. Khoe, "A Consulting Study on the Role of IT SMEs and Case Study on IT SMEs Supported by Government Loa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 15, No. 3, pp. 221-235, 2015.
- [8] K. Khoe, "A Proposal of Alternative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n IT-related Small & Medium

- sized Enterprise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1, pp. 279-287, 2013.
- [9] K. Khoe, “A Proposal of New Policies for Rais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Sponsored Loan for ICT SME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4, No. 11, pp. 107-113, 2016.
- [10] K. Khoe, “A Research on Impacts of Policy Supporting Loan for IT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3 Successful Cases”, Journal of CEO & Management Studies, Vol. 16, No. 3, pp. 91-113, 2013.
- [11] K. Khoe, “A Research on Performances and Impact Effects of Policy Supporting Loan through Case Study on 5 IT-relat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ournal of CEO & Management Studies, Vol. 15, No. 3, pp. 249-277, 2012.
- [12] K. Khoe, “An Analysis on Usefulness of Supporting Loan for Development of Applied Technology and Political Proposal for Improving Outcome”,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 12, No. 2, pp. 271-289, 2012.
- [13] MyounJae Lee and K. Khoe, “Development Method of Digital Content Finance-Focused on by Technical Value Evaluation”,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10-117, 2015.
- [14] M., Lee, B. Son and K. Om,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in Korea”, Research Policy, Vol. 25, pp. 805-818, 1996.
- [15] S, Kwak and H. Song, “A Study on Characteristic Fac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of SMEs Supported by Government Loan: Focused on Small Venture Business”,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Fall Academic Seminar, pp.131 - 49. 2003.

저자소개

고 경 일(Kyungil Khoe)

[정회원]



- 1995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 2003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 1995년 9월 ~ 2002년 12월 : 서강 경영연구원 병역특례연구원
 - 2003년 1월 ~ 2004년 12월 : 삼성경제연구소(SERI) 금융실 연구원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Delaware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2004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IT중소기업, 정책융자, 기업사례